소프트웨어 공학 과제 1 – Problem statement

Online E-book maker

구태성, 김호성

소프트웨어 공학 1분반

**Problem Statement**

기존에 일반인들이 책을 내는 과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. 작가가 되기 위해서 온갖 공모전를 우승하는 좁은 관문을 통과해 유명해지거나 직접 큰 액수의 출판비를 지불해서 책을 내야 했습니다. 이런 기존의 복잡하고 무거운 과정을 어떻게 디지털 기술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?

우선 비용의 부담 없이 누구나 집필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. 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세계 어디서나 언제든지 집필 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물은 서버에 저장되어 작업을 원하는 때에 중단하고 이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한 책 표지 추가하기 기능 등 유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을 완성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공유하고 그들의 책을 읽어볼 수 있는 독자의 경험도 목표로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어 책을 쓰고 공유할 수 있는 ‘플랫폼’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 입니다.

**시나리오**

사용자는 Admin 겸, Author이다. 사용자가 E-book Maker 프로그램을 키자, ID와 PW를 입력하는 로그인 창이 뜬다. 사용자는 우선, Author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. 그러자, 책장과 비슷한 느낌의 UI(책장 화면)가 나온다. 선반에 의해 두 개로 나뉘어진 공간의 위로는 내가 작업 중이던 책 목록이, 아래로는 내가 받아놓은 다른 Author들이 작성한 책 목록이 뜬다. 사용자가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책 목록은 최대 3개, 현재 사용자가 작성 중인 책 목록은 2개이므로, 사용자는 그 옆에 있는 + 버튼을 눌러 작성 중인 책을 하나 더 추가한다.

사용자가 작성 중인 책 목록을 좌 클릭 하자, 책과 같은 느낌의 UI(책 화면)가 나온다. 동시에,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페이지를 보여준다. 사용자는 이런저런 문장을 쓰고,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마친다. 책 작성을 마친 사용자는 방금 마친 책을 우 클릭 한다. 그러자 ‘보기’, ‘삭제’, ‘수정’, ‘요청’의 버튼들이 나열된다. 사용자는 책 작성을 마쳤으므로 ‘요청’ 버튼을 누른다. 그러자 “책 등록이 요청되었습니다”라는 알림과 함께 책에는 ‘요청 중’이라는 단어가 뜬다.

사용자는 계정을 로그아웃 한 후, 이번에는 Admin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. 그러자, 상단 화면에는 작업 중인 책 목록이 뜨던 Author 계정과 다르게, Admin 계정에는 요청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 책 목록이 뜬다. 그곳에는 사용자가 방금 요청 승인을 보냈던 책과 함께 다양한 Author들로부터 보내진 책들이 나열되어 있다. 사용자는 그 책들을 좌 클릭 해서 책 화면으로 넘어가 잠시 읽어본 후, 다시 책장 화면에서 우 클릭을 해서 승인 버튼을 누르거나, 거절 버튼을 눌러 목록을 지워 나간다.

모든 책들을 검토한 후, 사용자는 책장 화면 아래 화면에 있는, 받아 두었던 책들을 살펴본다. 읽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한 사용자는 책 목록의 옆에 있는 +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책 목록을 확인한다. 그곳에는 사용자가 Admin으로서 방금 승인한 책을 포함하여 승인된 다양한 책들이 올라와 있다. 사용자는 그 중 하나를 좌 클릭 하여 책장 화면으로 가져온다.

